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hierarchy)에 따른 매체가시성(media visibility)의 양과 질 네트워크 분석

The Volume and the Quality of Media Visibility according to the Hierarchy of Offender and the Victim

홍주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Ju-Hyun Hong(joohssy@kookmin.ac.kr)

요약

기존의 성범죄 보도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이중 고통을 주었다. 이 연구는 성범죄 보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도량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혔다. 가해자가 유명인인 가해자 우위의 관계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비슷한 수평적 관계를 비교한 결과 가해자 우위의 관계의 보도량이 더 많았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 언론은 가해자의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반면,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는 일반인 가해자보다 여성 피해자에게 주목했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는 사건의 귀인을 유명인에게 했고,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는 가해자의 주장을 지지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을 귀인했다.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 언론은 가해자의 인권,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 중심어 : | 성범죄 보도 | 가해자-피해자 위계 | 네트워크 분석 | 프레임 분석 |

Abstract

A sex offense report highlights the victim as well as the offender involved in the sex crime. This study explored the hierarchy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based on the frequency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In case that the perpetrator is a celebrity, the media focuses more on the celebrity's actions. The volume of reports for cases where the offender has a position superior to the victim's (offender superior relationship) is larger than for those where the two have a horizontal relationship. The press highlights the celebrity in offender superior relationships and the victim in horizontal relationships. The celebrity is held responsible for the cause of the crime in the offender superior relationship. However, the victim him/herself is held responsible for the perpetrated offense in horizont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es in this study, the press fail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rivacy in offender superior relationships.

■ keyword : | Sex Offense Report | the Hierarchy of the Attacker-the Victim | Network Analysis | Frame Analysis |

I. 문제제기

2008년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어린이 성폭행 사건은 사건의 잔인함과 성폭행 어린이의 피해가 끔찍해 온 국민이 분노했고 성폭행범의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1]. 언론에 의해 ‘나영이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가해자보다 피해자 중심의 보도로 나영(가명)이가 두 번 희생당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가해자인 ‘조두순 사건’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두순 사건’보다 ‘나영이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언론은 ‘권양 성고문 사건’, 1988년 성폭력 가해자의 허가 절단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이름을 따서 ‘변월수 사건’으로 부르는 등 성범죄 사건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였다. 1998년 서울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도 가해자인 신정휴 서울대 교수보다 피해자인 ‘우 조교’에게 주목해 ‘우 조교 사건’으로 불린다. 2016년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섬마을 여교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작년 연이어 발생한 연예인 성폭행 사건에서 언론이 피해 여성들을 ‘○○녀’로 명명하면서 피해자 비난에 가세하는 양상을 보여줬다[2].

여성과 관련된 성폭행 사건에서 언론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남성보다 여성에게 주목한다. 여성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여성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고, 피해자인 여성을 정조 관념이 없거나 성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구성함으로써 피해 여성을 비난하거나 여성 혐오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작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이 강남역 건물의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사건인데,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켰다.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 현상은 특히 성 범죄 사건의 경우 빈번하다. 피해자의 성격이나 남자 친구 관계, 옷차림 등 사건의 본질과 동떨어진 내용들을 흥미 중심으로 보도함으로써 독자로서 하여금 사건의 귀인을 피해자 개인에게 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언론

은 성폭행 사건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낙인(labeling)을 통해 사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기술한다[3]. 사건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으로써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언론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다른 태도를 나타내고, 차별을 두는 것을 ‘피해자 위계’라고 한다[4]. 본래 피해자 위계란 동일한 사건의 피해자라도 인종이나, 직업, 직위, 국적에 따라 언론이 동정심을 나타내는 정도가 다르고 보도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범죄 보도에서 유명인이 가해자일 경우, 언론은 범법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생산한다. 공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범죄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추정하고, 선정적인 기사를 생산하면서 공인을 비난한다. 미국 언론이나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강정호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이나 언론이 추측 보도를 하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공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언론의 보도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가해자-피해자의 위계(hierarchy)에 따라 보도가 어떻게 다른지 주목했다. 피해자 위계는 언론이 피해자의 직업, 성별, 인종, 지위에 따라 동일한 사고의 피해자라도 다르게 보도한다는 것으로 뉴스가치의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도량과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범죄의 경우 술에 취해서 싸움을 했다고 음주 행위를 비난하고 성범죄 경우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실을 비난하는 것이다. 언론이 성범죄 사건 보도에서 가해자보다 피해자에 주목을 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현상은 남성 중심의 사건 보도를 통해 여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들은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인 여성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누구의 시각에서 사건이 구성되는지에 주목했다[5]. 이 연구는 성폭행 보도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위계가 존재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언론이 가해자의 명성, 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성범죄 보도를 어떻게 틀 짓는지 저널리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낙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고, 언론이 사건을 누구에게 귀인 하는지 프레임 분석을 통해 밝힘으로써 성범죄 보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위계가 작동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희롱 사건, 성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확산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언론의 성폭행 보도의 문제점을 저널리즘 관점에서 규명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확산과 가해자인 공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이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제안하고자 한다.

1. 2차 피해를 확산시키는 언론의 성범죄 보도: 피해자 비난(victim blaming)

언론의 성범죄 보도는 가해자 보다 여성인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어(Greer, 2007)는 범죄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으로써 사회적으로 피해자를 대하는 인식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귀인 할 경우 사람들은 피해자를 비난하게 된다. 즉, 피해자 비난(victim blaming)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해의 사례를 보면, 특히, 성범죄 사건 보도의 경우 피해자 비난 현상이 두드러졌다. 성폭행을 당당한 여성이 술에 취했다거나 옷차림을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으로 보도한다[6]. 코나웨이(Conaway, 2007)의 연구에 따르면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옷차림이 성범죄를 유발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헨니(Heaney, 2012)는 강간을 당한 여성에 대해 언론은 마

약을 했는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연구는 성범죄 사건을 사회적 차원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구성함으로써 사회가 부담해야 할 역할이나 비난을 개인에게 돌리도록 한다. 즉 사회나 국가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약을 하거나 술에 취하면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저널리즘 측면에서 언론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언론의 성범죄 보도에 나타난 것처럼 피해자를 부정적인 단어 나 부르기 쉬운 단어로 낙인(labeling)하는 것이다. 본래 낙인 이론은 범죄사회학에서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언론이 정상과 일탈의 경계에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을 일탈자로 낙인을 한다면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범죄자로 인식된다는 것이다[7]. 이 연구는 언론이 피해자를 어떻게 명명하는지가 사건을 접하는 독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피해자에 대한 호칭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론의 낙인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측면에서는 사건의 발생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함으로써 성폭행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가해자가 유명인일 경우에는 범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의해 범죄자로 불리면서 역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다음으로 성범죄 사건을 누구의 시각에서 구성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건이 가해자인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구성될 경우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지위를 얻기 힘들다. 언론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틀 짓는지를 프레임(frame)이라고 하는데, 사건을 틀 짓는 것은 기사와 독자, 담론 간의 교류의 과정이다[8]. 언론은 중요한 단어를 선택하고, 은유, 사례제시, 묘사, 논쟁, 시각적 이미지 등을 사용해서 사건을 구성하고, 언론 보도는 독자들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기사에서 사용한 단

어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독자들은 내재된 의미를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생산하는 것이다[9]. 프레임 접근이 내용분석과의 차이는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다. 텍스트에서 의미는 한 문화 내에서 공유되고 파악된다는 것으로 구성원간의 경험의 공유가 중요하다.

언론은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현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선택하고, 강조한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사건이 다르게 구성되며, 사건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사건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이 사건의 귀인을 개인에게 돌리는지, 사회에게 돌리는지는 사건의 책임 소재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건이 누구의 시각에서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사건의 책임 소재를 피해자에게 돌리는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돌리는지 성폭행 보도의 프레임을 알아볼 것이다.

2. 가해자피해자 위계(hierarchy)에 따른 언론의 차별적 보도

그렇다면, 언론에 의해 피해자 비난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과거 성폭행 사건 보도를 보면, 언론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직업에 주목하면서 사건의 발생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인 가해자는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이거나 외제차를 탔다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 여성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한다. 그럴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10].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직업이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폴락과 쿠브린은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지위가 높고, 백인일 경우 언론이 주목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 보도를 보면, 성범죄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일 경우 언론이 덜 주목하고, 쟁점화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직업, 지위, 인종, 성별 등 피해자의 속성에 따라 언론이 차별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피해자 위계(hierarchy)라고 한다[11]. 그리어는 항공기 사고나 지진과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은 백인, 회사의 CEO나 기관의 장, 유명인에게 주목하고, 이들을 더 많이 취재한다고 한다. 길크리스트(Gilchrist, 2010)도

캐나다 지역 언론에서 범죄에 희생된 여성의 출신지역과 인종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보도하는지 가시성의 양과 질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위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피해자가 중산층 백인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면에 더 많이 보도되었고 타 지역 출신보다 그 지역 출신일 경우 더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12].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는 성범죄 보도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 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보도하는지 알아보려 했다. 가해자가 연예인 같이 유명인일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전에 이미 언론에 의해 범법자로 명명된다. 무혐의로 입증되더라도 이미 공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내밀 영역을 폭로하고,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공인의 사생활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성범죄 혐의자의 인권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의 사례에서 봤듯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성매매 혐의로 결론이 난 경우, 성폭행범과 죄의 정도가 다르다. 법적으로 범죄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공인이거나 유명인일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18]. 성범죄 보도에서도 뉴스가치에 따라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언론이 성폭행 보도를 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위계가 있다는데 주목했다.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 경우에는 피해자보다 뉴스 가치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뉴스 가치가 있을 경우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점에서 성범죄 보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성범죄 관련자가 유명인일 경우에는 범법 행위가 법적으로 밝혀지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 하는 경향이 있다. 유명인 가해자의 인권이나 초상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다.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이미지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성범죄 가해자가 유명인일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언론의 낙인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 관련자들인 가해자와 피해자 위계가 성범죄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저명성을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분류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적 계층을 의미하기도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부의 소유 여부를 의미하기도 한다. 언론의 뉴스가치측면에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요하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경우 언론이 더 주목해 보도하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저명성도 언론의 주목을 받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명인인 경우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내세워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보도한다.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둘 다 높은 경우에는 둘 다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피해자 우월적 수평적 관계’로 개념화했다. 가해자의 지위가 높고, 피해자의 지위가 낮을 경우에는 ‘가해자 우위의 관계’로 개념화했다. 가해자의 지위가 높으므로 언론은 뉴스 가치가 있는 가해자에 주목해 가해자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피해자의 지위가 높고, 가해자의 지위가 낮을 경우에는 ‘피해자 우위의 관계’로 개념화했다. 반면, 피해자의 지위가 낮고 가해자의 지위도 낮을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로 보았다.

[표 1]은 지금까지 설명한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유형화 한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높고 낮음으로 구분했다. 뉴스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성범죄 관련자의 지위가 높을 경우 언론의 주목을 받기 쉬울 것으로 생각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둘 다 낮을 경우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피해자 중심으로 보도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표 1.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지위에 따른 가해자-피해자 위계 유형화

가해자의 지위 / 피해자의 지위	높음	낮음
높음	가해자-피해자 우월적 수평적 관계	피해자 우위의 관계
낮음	가해자 우위의 관계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

3. 피해자·가해자 위계(hierarchy)와 매체 가시성의 양과 질의 관계

성범죄 보도에서 언론의 피해자 차별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해자·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언론 보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매체 가시성(media visibility) 개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매체 가시성은 특정 집단이나 인물이 언론에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매체 가시성은 언론이 성범죄 사건을 얼마나 많이 보도하는지 보도량으로 개념화했다. 언론이 많이 보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매체 가시성은 뉴스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언론은 뉴스가치성이 있을 경우 주목하고, 더 많이 보도하기 때문이다. 뉴스가치(newsworthiness)는 사건을 이야기할만한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기자와 조직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언론은 극적, 자극적인 것에 뉴스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reality)은 언론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대부분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현실이 구성된다고 본다.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백인 중산층 여성은 순진하고, 착하게 여겨지는데 언론의 성범죄 보도에서도 이러한 편견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유흥업소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언론은 극적이고, 즉흥적, 폭력적, 유명인이 등장할 때 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뉴스가치가 있다고 본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명성이 높을 경우 뉴스가치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유형화한 가해자-피해자 위계에서 가해자의 지위나 피해자의 지위가 높을 때 매체가시성의 양이 많을 것이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낮을 경우에는 뉴스가치 측면에서 언론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이다.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는 성범죄 사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인데, 매체 가시성의 질 측면에서 가해자 보다 피해자에 주목해 보도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성폭행 사건 보도에서 언론이 사건을 어떻게 틀 짓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네트워크 접근

을 했다. 네트워크 접근은 언론에서 많이 언급한 단어를 찾아내고,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찾아내는 것으로 기자가 사용한 단어를 통해 강조한 것을 찾고, 스토리를 찾을 수 있다. 의미네트워크 분석은 단어와 단어의 연결을 통해 수사학적인 의미를 찾고,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전달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다. 보통 자주 사용한 단어에 대한 어절 분석을 통해 강조한 단어를 밝히고, 단어와 단어의 관계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알아낸다. 네트워크 접근에서는 텍스트에서 많이 등장한 단어가 가운데에 위치하고, 단어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의미를 알아낸다.

언론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선택해서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주변화하거나 사사화(私事化)한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언론이 강조한 것을 밝혀냄으로써 사건을 어떻게, 누구의 관점에서 구성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피해자 위계와 매체 가시성의 양과 질의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가해자 우위의 수직적 관계가 뉴스가치의 관점에서 매체 가시성의 양이 가장 많을 것이다. 가해자 우위의 수직적 관계일 경우 가해자가 뉴스가치가 있기에 가해자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가해자를 범법자로 명명할 것이다. 가해자-피해자 불평등 관계일 경우도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할 것이다.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일 경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인 여성에 주목하고,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강조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성범죄 보도에서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라 매체 가시성의 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성범죄 보도에서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라 매체 가시성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성범죄 보도에 가해자-피해자의 위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들의 위계 관계에 따라 언론이 어떻게 사건을 구성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낙인 하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표 2]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설계이다. 먼저,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라 언론 보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언론 보도를 매체 가시성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매체 가시성의 양은 빈도 분석을 통해 알아냈고, 매체 가시성의 질은 어절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밝혔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텍스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언론이 성범죄 보도를 어떻게 하는지 프레임을 찾아냈다.

표 2.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른 언론 보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설계

연구의 종류	세부 내용	분석 방법
매체 가시성의 양	성범죄 보도량	빈도 분석
매체 가시성의 질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낙인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분석
	성범죄 사건 프레임 분석 (특정 상황 강조 및 사건의 본질 주변화)	

1. 분석대상 이슈: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른 성범죄 사건 분류

분석 대상 이슈를 찾기 위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을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라 구분해 보았다. [표 3]은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나열한 것이다. 가해자 우위의 사건에서 가해자의 직업은 연예인이거나 일반인에게 알려진 사람으로 한정했다. 검사라고 하더라도 평검사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명성이 낮다고 분류했다. 가해자 우위의 수직적 관계나 불평등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연예인일 경우 고영육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창중과 김수창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공무상 면책 특권을 미국 검찰이 받아들였고,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료되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경우 ‘성선택장애’ 진단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반면, 대부분의 성범죄 보도에 해당하는 가해자-피해자의 수평적 관계에서는 가해자는 모두 구속되어 가해자에게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다는 것이 입증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모두 여성의 이름이나 여성 피해자를 지칭한 단어로 불린다. 가해자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아 몇 십 년이 지나도 독자들은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먼저 떠올린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 명명이 잘못되었다는 여성단체의 비판이 제기되자 몇몇 사건은 후에 가해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건을 명명했다. 예를 들면 하남 여대생 살인사건은 영남제분 살인사건으로, 나영이 사건은 조두순 사건으로 바뀌었으나 독자들은 여전히 하남 여대생 살인사건, 나영이 사건에 더 익숙하다.

표 3. 가해자-피해자 위계를 기준으로 성범죄 사건 분류

성범죄 사건 가해자-피해자 관계	주요 사건	가해자-피해자의 직업
가해자-피해자 우월적 수평적 관계(0)	-	
피해자 우위의 관계(0)	-	
가해자 우위의 관계(11)	박유천 성폭행혐의, 엄태웅 성폭행혐의 주병진, 이수근, 유상무 성폭행 미수 사건 고영옥 성폭행 혐의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 윤창중 인턴녀 성추행 사건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 부장판사 성매매 사건미창부 공무원 성매매 사건	가해자:연예인 청와대 대변인 제주지검장, 공무원 피해자:유흥업소 여성 대학생, 고등학생 유흥업소 여성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9)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하남 여대생 살인사건(영남제분 살인사건) 나영이 사건(조두순 사건) 외제차 성폭행 사건 성대교수 대학원생 성희롱 사건 의사의 환자 성추행 사건 (대장 내시경녀), 원조교제 사건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일반인 피해자: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대략의 사례를 통해 언론이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른 언론의 차별적 보도를 학문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먼저 [표 3]에 제시된 여러 사건 중에서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개씩 선택해서 언론 보도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분석 대상 성범죄 사건은 시의성을 고려해서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중에서 선택했다. 이 연구는 언론에 보도된 성범죄 사건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연구를 통해 성범죄 사건이 잘못 호명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이유 때문이다.

가해자-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상, 중, 하로 구분하고, 각각 해당하는 사건을 검색했다. 상은 고위관리직, 장관관, 판검사, CEO,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유명인이 해당한다. 중은 일반사무직, 교사, 일반 공무원이다. 하는 일용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유흥업소 여성 등이다.

분석대상 기간인 1년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상, 중, 하로 분류한 결과 피해자가 상인 경우 1개(성현아 성매매 사건), 피해자가 중인 경우 1개(스리랑카 노동자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등 피해자의 지위가 높은 경우는 2개에 불과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지위는 상과 중으로 구분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지위는 중과 하로 구분할 수 있어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박유천, 엄태웅 성범죄 사건이다. 박유천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고소한 여성들에 대해 무고 및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이다. 엄태웅은 성폭행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성매매 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박유천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박유천이 무죄 선고를 받았기에 언론의 유명인에 대한 보도태도를 밝히는데 적합하다고 보았다.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는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신안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는 무죄를 받은 가해자를 선택해 언론이 이들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알아보고자 했고,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는 명백한 성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피해 여성의 인권을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성범죄 사건 중에서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 대한 보도가 11건이고,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 대한 보도가 9건으로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모두 높은 경우나 피해자의 지위가 높은 사건은 찾아볼 수 없었다. 피해자인 여성의 지위가 높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는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 성범죄 사건별 분석대상 기사

언론 보도를 분석하기 위해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된 뉴스를 선택했다. 가해자의 명성이 높은 연예인일 경우 연예지나 스포츠지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사회면보다는 연예면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해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른 매체 가시성의 차이를 밝히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송 매체를 선택한 이유는 아이템 당 1분 30초 내외의 시간에 보도를 해야 하므로 핵심적인 내용만 강조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범죄 사건이 사회면에서 다루지는 사건이므로 지상파 2개와 종합편성채널 2개의 메인 뉴스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지상파는 KBS와 MBC를, 종편은 TV조선과 채널A를 선택했다. 언론에서 쟁점화된 기간을 분석 기간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박유천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소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6월 14일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7월 15일까지를,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6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했다.

표 4. 가해자-피해자 위계별 분석 대상 기사

가해자-피해자위계	사건(기간)	매체	최종 분석 기사	
가해자 우위의 수직적 관계	박유천 성폭행 사건 (2016. 6. 14. ~7. 15)	지상파	40	92
		종편	52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2016. 6. 3~7. 13)	지상파	21	51
		종편	30	
전 체				143

3. 성범죄 보도의 매체 가시성의 양 조작적 정의

성범죄 보도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양이 기사화되었는지 사건별로 보도량을 측정했다. 사건이 처음 언론

에 보도된 시기부터 쟁점화 된 시기, 더 이상 보도되지 않은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보도량을 비교해서 사건별로 매체 가시성에 차이가 있는지 밝혔다. 사건 별로 매체 가시성 지수를 보도 건수/언론의 쟁점화 기간으로 측정했다. 매체 가시성 지수=보도량/쟁점화 일수로 측정했다.

4. 성범죄 보도의 매체 가시성의 질 조작적 정의

성범죄 보도의 질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명명하는지 헤드라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기사를 통해 사건을 누구의 시각에서 구성하는지, 사건의 귀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돌리는지, 또는 가해자에게 돌리는지 분석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사건을 다루는지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헤드라인과 기사에 대한 어절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기사에 나타난 중요한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성범죄 보도에 대한 어절 분석을 실시했다. 어절 분석은 국립국어원의 한마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헤드라인과 기사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가 무엇인지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형태소 분석, 어절 분석 등 연구 목적에 맞게 단어가 등장한 빈도와 비율을 알 수 있다. 어절 분석을 통해 많이 등장한 단어를 추출하고, 기사에서 많이 등장한 단어가 속한 문장을 선택했다. 어절 분석의 분석 단위는 기사 한 개다.

어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사에서 중요하게 다룬 부분을 찾아내고, 중요한 단락에서 언급된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네트워크 분석은 소셜네트워크분석 프로그램인 노드엑셀(NodeXL)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노드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기사에서 많이 언급한 단어와 함께 등장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단어와 단어의 연결 관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단어를 찾기 위해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했다. 중심성 분석은 매개 중심성, 인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구는 각각의 중심성 값을 비교함으로써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밝혔다. 매개 중심성은 특정 단어와 직접 연결된 단어와의 관계를 비교한 것이다.

인접 중심성은 단어와 직접 연결된 단어뿐만 아니라 인접한 단어까지 모두 측정된 값이다. 위세 중심성은 기사에서 영향력이 있는 단어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의미 분석은 텍스트에 자주 언급된 단어가 중요하다고 보고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13]. 텍스트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를 파악해 전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한다. 내용분석이 정해진 분석틀을 기준으로 빈도를 측정한다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의미 분석은 분석 대상 기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내용분석과 차이가 있다. 기사에서 언급한 명사나 형용사 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트워크 분석도 내용분석과 마찬가지로 많이 등장할수록 효과가 있다는 연구의 전제는 같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낙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범죄 사건에서 강조한 단어가 무엇인지, 단어와 단어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혔다.

끝으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기사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파악했다. 텍스트 분석은 기사나 글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의미를 찾고, 특정 단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배경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표 5]는 텍스트 분석을 위한 유목이다. 사건 관련자인

표 5. 성범죄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항목

분석 유목	세부 내용	구체적 사례	
사건 관련자	가해자에 대한 설명	① 가해자 사생활 ② 가해자 직업 ③ 가해자 성격	대학교수
	피해자에 대한 설명	① 피해자 사생활 (교우관계, 남자 친구, 행실 등) ② 피해자의 직업 ③ 피해자의 학교 ④ 피해자의 외모	명문대 법대생과의 교제, 현직 변호사와의 맞선, 피해자 주변 남성들과의 관계, 몸을 함부로 굴려 교사, 대학원생 명문 E여대 뛰어난 외모
성범죄 사건 구성	사건 귀인	① 가해자 ② 피해자 ③ 사회적 책임 ④ 국가의 책임	꽃뱀
	피해자에 대한 시각	① 수동적인 존재 ② 능동적인 존재	몸 뺐겨, 수치스러운
	사건의 화자	① 가해자 ② 피해자	아가씨가 드라이브하고 해서 갔다
피해자에 대한 표현	피해여성 비하	① 있다 ②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알아보고, 성범죄 사건의 구성을 사건에 대한 귀인, 피해자에 대한 시각, 사건의 화자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피해자에 대한 표현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했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언론이 성범죄를 어떻게 틀 짓는지 밝혔다.

4. 연구결과

성범죄 보도에서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라 언론 보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밝히기 위해 양적 측면에서 보도량을 비교했고, 질적 측면에서 네트워크 분석, 프레임 분석을 실시했다.

1. 연구문제 1: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른 성범죄 보도의 매체 가시성의 양 분석 결과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라 언론에 쟁점화 된 기간을 살펴보면,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41일로 가장 길었고, 가해자 우위의 관계는 32일로 나타났다. 보도량/기간으로 매체 가시성 지수를 측정된 결과 박유천 성폭행 사건이 2.88로 높아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상무 성폭행 사건이 1.32로 높아 가해자 우위의 수직적 관계와 가해자 우위의 불평등 관계가 뉴스가치 관점에서 언론이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의 경우 언론에 쟁점화 된 기간이 41일로 가장 길었으나 보도량은 적게 나타나 매체 가시성 지수는 1.24로 나타났다. 매체 가시성의 양을 기간 대비 보도량으로 측정된 결과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 경우 언론이 더욱 집중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른 매체 가시성의 양 분석 결과

사건	언론에 쟁점화 된 기간	보도량	매체 가시성 지수= 보도량/기간
가해자 우위의 관계: 박유천 성폭행 사건	6.14~7.15 (32일)	92	92/32=2.88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6.3~7.13 (41일)	51	51/41=1.24

언론의 보도량 뿐만 아니라 언론이 사건을 누구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가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독자의 현실인식에 중요하므로 매체 가시성의 질을 네트워크 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밝혔다.

2. 연구문제 2: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른 성범죄 보도의 매체 가시성의 질 분석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에 따라 성범죄 보도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어떻게 낙인 하는지 알아보고, 성범죄 사건이 누구의 시각에서 어떻게 틀지어지는지 밝히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2.1 가해자 우위의 관계: 박유천 성폭행 사건 보도의 가해자-피해자 낙인 및 프레임

박유천 성폭행 사건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헤드라인과 기사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왼쪽을 보면, 박유천-성폭행, 박유천-화장실-고소녀, 박유천-전대미문, 박유천-근태, 박유천-성매매-사기로 연결되어 박유천을 중심으로 사건을 명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유천의 매개 중심성 값은 680.500으로 가장 높았고, 고소 213.000, 성폭행 200.000, 화장실 163.500, 여성 113.000 증거물, 90.000, 고소녀, 79.000, 의혹 맞고소, 62.0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유천이 공인이고 한류스타라는 점에서 언론이 박유천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고소인’이라는 명칭 대신 ‘고소녀’로 부름으로써 비하했다.

[그림 1]의 오른쪽 그래프인 기사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박유천에 대해서 박씨 3404.177, 박유천 3128.336으로 언급했고, 성폭행의 매개 중심성 값이 1454.163로 높게 나타나 박유천의 성폭행에 주목한 것을 알 수 있다. 헤드라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폭행 장소인 화장실을 강조했다.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이 많이 언급되었다(매개 중심성 값: 화장실 1315.183, 유흥업소 1166.525). 박유천-성폭행-혐의, 박유천-화장실-유흥업소-A씨로 연결되었고, 화장실은 화장실-경찰-국과수, 화장실-못나가게, 화장실-유흥업

소, 화장실-박씨로 연결되어 화장실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공익근무 요원으로서 박유천의 평소 근무 태도를 비판했는데, 유흥업소 종업원의 말을 인용해서 터질 게-터졌다로 보도했고, 조퇴-논란, 강남-고급-유흥주점, 텐카페-고급-술집 등 박유천이 고급 술집을 드나들었다는 것을 비판했다.

검찰에 출두한 박유천을 헬썹한-얼굴에, 어깨를(254.000)-움츠린 채(378.000)로 묘사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경찰의 매개 중심성 값이 915.959로 높았는데,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고소인이 4명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수사 내용을 공개해 피의자인 박유천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보호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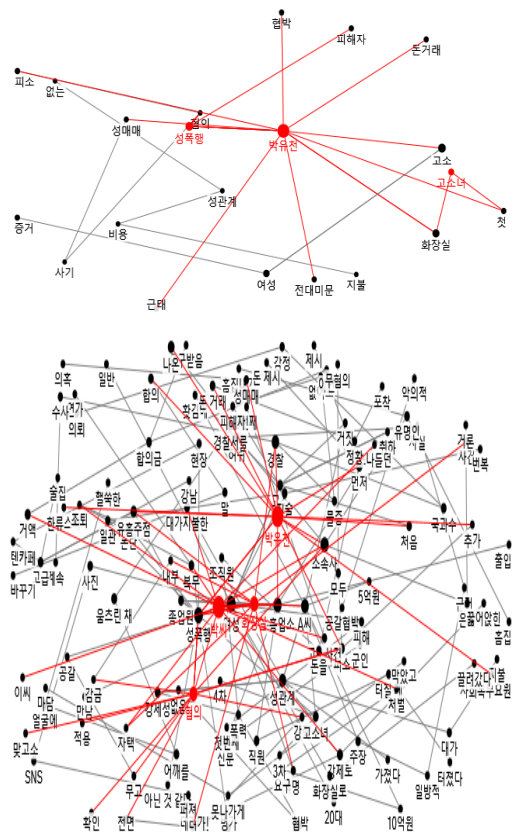


그림 1. 박유천 성폭행 사건 헤드라인·기사 네트워크 분석 결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가해자 우위의 수직적 관계에서는 언론이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박유천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도 ‘고소녀’라고 지칭함으로써 피해자인 여성을 비하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고소녀’ 외에 피해자는 A씨로 불리웠다(매개 중심성 값 1005.336).

2.2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보도의 가해자-피해자 낙인 및 프레임

헤드라인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전남, 신안 20대-여교사-성폭행-혐의로 연결되었고, 사건이 발생한 전남, 신안도 언급했다. 여교사-성폭행-혐의로 연결되어 여교사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성폭행의 매개 중심성 값이 2825.3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교사 1923.583으로 높았다.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주민(매개 중심성 값 1101.583)으로 언급했고, 피의자들로 언급되었다. 피해 여교사에 대해서는 침착한-대응, 병가-내고-병원-치료-받아로 묘사했고, 피해자에 대한 조롱-덧글이 확산되었다고 했다. 성폭행이 계획적이라는 것과 이들에 대한 선처-논란도 지적했다.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의 경우 기사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사건의 매개 중심성 값이 3917.633로 가장 높았고, 여교사 3663.053, 성폭행 2670.375 순이었다. 네트워크의 중심에 여교사-성폭행-사건으로 연결된 단어가 위치했다. 성폭행이 발생한 장소도 강조했다. 전남-신안-섬-벌어진, 전남-신안군 전남-신안군-한 섬-주민들이-성폭행으로 연결됐다.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차마-입에 담기-힘든-끔찍한으로 사건이 충격적임을 나타냈다. 섬마을의 매개 중심성 값도 382.025로 나타나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을 설명했고, 성폭행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집단 매개 중심성 값 206.591), 사건을 피해자의 직업을 기준으로 명명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인 여교사를 부각시키고 사건 발생 장소를 강조함으로써 언론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주민(매개 가치성 값 1309.981)이라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단어로 나타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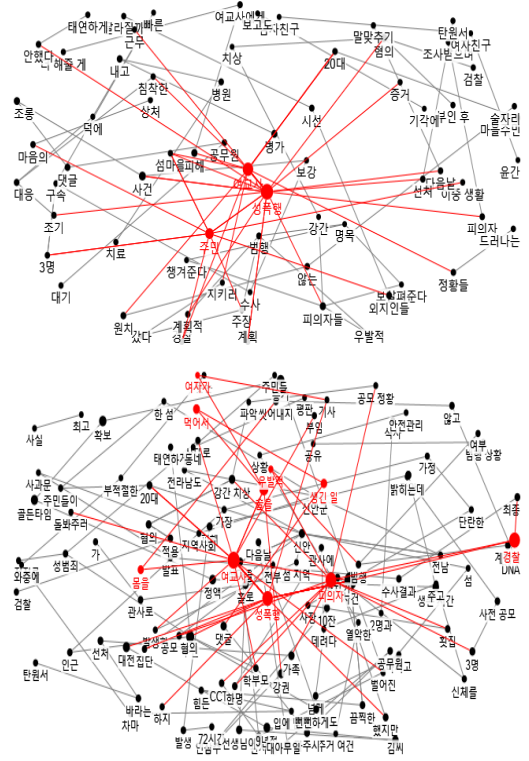


그림 2. 신안여교사 성폭행 사건 헤드라인·기사 네트워크 분석 결과

해자를 부각시키지 않았으며, 데려다 - 주고-신체를-만지긴-했지만으로 연결되어 가해자의 입장을 전달했다. 심지어 가족-선처-바라는-탄원서-제출로 연결되어 가해자에 대한 탄원서까지 제출된 점을 강조했다.

피해 여성의 상황에 대해서는 가해자-술을-권함으로 연결되어 피해자를 비난했다. ‘술을’의 매개중심성 값이 1706.095으로 높게 나타나 술이 사건의 원인임을 부각시켰다. 물론, 가해자들이 술을 강권했지만(강권 매개 중심성 값 615.000) 인삼주-10잔 - 넘게-마시고로 연결되면서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가 제공한 듯한 생각이 들도록 했다. 실제로 이에 대해 여자가 술을-먹어서-생긴 일이라고 비난한 공무원이 파면되었다. 과주시- 공무원 - 덧글을 통해 2차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증거-확보-끝탄임- 정액- 생존 시간의 연결을 통해 피해 여성이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술을 먹은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 - 피의자 - 3명 - 사전공모-밝히는데 - 집중, 최종-수사결과 - 공모 정황 - 파악으로 연결해 경찰의 수사 방향을 알렸다. 경찰의 매개 중심성 값은 2843.183, 피의자 2866.617로 높았다. 강간 치상 557.000, 혐의 375.000 순으로 매개 중심성 값이 높았다.

3.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른 성범죄 보도의 이중성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인 박유천에 주목하고, 가해자의 신상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박유천의 사생활이 문란했고,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는 점을 주변인 인터뷰를 통해 강조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해 박유천의 정신을 분석하기도 했다. 박유천에 대해서는 전대미문 성추문, 한류스타 등의 표현을 쓰면서 한류스타의 성추문을 부각시켰다. 검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예정 일정을 밝히면서 박유천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와 같이 가해자의 행동을 중심으로 성범죄 사건을 구성하고 가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 언론 보도를 ‘가해자 비난 프레임’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하는 등 공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가해자 사생활 강조 프레임’이라고 했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의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는 주목받지 못했고, 기사에서 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언론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로 알려진 고소한 여성을 ‘고소녀’로 지칭하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피해 여성 비하 프레임’으로 정의했다.

반면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의 성범죄 보도에서는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고 피해 여성의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피해 여성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구성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보도함으로써 성폭행 사건이 우발적이었던 것을 강조했다. 가해자

의 해명이나 변명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가해자 중심의 사건 프레임’으로 보았다.

표 7. 가해자-피해자 위계에 따른 보도 프레임

가해자-피해자 위계	낙인	프레임 분석 유목			프레임
		가해자, 피해자 신상	성범죄 사건 구성	가해자 피해자 표현	
가해자 우위의 관계: 박유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박유천	사생활, 근무 태도 불량(군인 신분, 군복무 중 연가, 휴가 사용)	강남 고급 주택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폭행 4번 고소	한류스타 줄 있는 고소 전대미문 성추문 박유천이 먼저 돈 제시 거짓말탐지기 조사 예정	가해자 비난 프레임 가해자 사생활 강조 프레임
	피해자: 고소녀 A씨, 20대여성 고소녀 4명		수치스러워 나가지 못했다 강제성 없는 성관계 고소 취하		피해 여성 비하 프레임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 :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 마을주민 주민들 학부모형		술에 만취한 여교사 데려다 주려다 성폭행 의도 없음 여교사 지키려갔다 술취해 기억 안나	피의자 조사 받으며 웃기도 행겨준다. 보살펴준다 짐승 같은 학부모들 계획적 범행무게	가해자 중심의 사건 프레임
	피해자: 섬마을 여교사, 신안 여교사	피해자의 직업, 학교	주민들이 권해서 인삼주 10잔 마심	침착한 대처	피해자 사생활 강조 프레임 가해자 귀인 프레임

가해자 우위의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연령, 직업, 근무 지역 등이 자세하게 드러나고 헤드라인에서 ‘신안 여교사, 섬마을 여교사’등 피해자의 신원을 밝혔다는 점에서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사생활 강조 프레임’으로 정의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마시지도 못하는 인삼주를 10잔 넘게 마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건의 발생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의미를 전달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 귀인 프레임’으로 보았다. 반면, 가해자들이 술을 먹고 저지른 행동이라고

인급한 것을 기사화함으로써 ‘가해자 중심의 사건 프레임’이 나타났다.

프레임 분석을 통해 언론은 성범죄 보도에서 뉴스가치에 따라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주목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뉴스가치가 높아 가해자에 대해 흥미 위주의 기사를 생산했다.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는 일반인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인 여성에 주목해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제목을 보면,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는 유명한 이름을 붙였고,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는 가해자인 남성보다도 피해자인 여성 중심으로 이름을 붙였다. 즉 ‘박유천 성폭행 사건’과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신안 섬마을 여교사 사건’이다.

5. 결론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성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은 피해자인 여성에 주목해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 사건을 부르는 등 피해자 중심의 보도로 피해자에게 이중고통을 주었다. 이 연구는 지난 해 성범죄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명한 가해자의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서 성범죄 보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성범죄 사건을 가해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유형화하고 지난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성범죄 사건을 분류했다. 가해자 우위의 성범죄 사건으로 박유천 성폭행 사건을 선택했고,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로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선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에 따라 보도량과 프레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명인이 관련된 가해자 우위의 성범죄 보도량이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보다 많았다. 헤드라인과 기사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는 피해자보다 유명한 가해자에 더 주목하고, 가해자의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반면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의 경우에는 일반인 가해자보다 여성

피해자에게 주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사건의 제목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처럼 피해 여성의 신상이 드러나도록 붙였다. 이 사건의 경우 ‘신안 학부모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여전히 피해 여성의 이름을 붙였다. 언론은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도 여성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고소녀’로 지칭한 것이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 사건의 귀인을 박유천에게 했다. 박유천의 평소 행실, 문란한 성생활, 불성실한 공익 근무태도를 박유천 주변인과 유흥업소 종사자의 말을 인용해 부정적으로 기사화한 것이다. 반면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는 가해자들이 ‘술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과 ‘여교사를 데려다 주려고 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함으로써 가해자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권유로 인삼주를 10잔 넘게 마셨다’는 점을 강조해 사건의 귀인을 피해 여교사에게 했다.

박유천 성폭행 사건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보도량과 네트워크 분석, 프레임 분석을 통해 언론의 성범죄 보도에 가해자, 피해자의 지위에 따른 위계가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는 이전의 성범죄 보도 프레임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해자가 유명한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는 피해자보다 뉴스가치가 있는 가해자에 주목하고 기사화했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에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명권, 초상권 등 사생활 보호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개인의 신상이나 사건 발생 장소, 지역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 초상권도 보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성범죄 보도의 경우 흥미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섬마을 여교사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정부에서 오지 교사의 근무환경 문제나 여교사 안전 위협 등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나 언론의 관심사는 성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마을 사람들의 반응 등 주변적 정보를 기사화하는데 그쳤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주목했던 것이 가해자에게 옮겨 갔을 뿐 가해자의 인권이나 사생활은 보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론의 성범죄 보도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피해자 중심의 성범죄 보도가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는 가해자 중심의 보도가 이뤄진다는 것을 밝혔다. 성범죄 보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규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제안해 향후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성범죄 사건이 가해자 중심인지, 피해자 중심인지를 밝혔다. 사건의 전개과정에 따라 가해자 중심 프레임이나 피해자 중심 프레임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이슈의 확산 주기를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성범죄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한 개씩 선택해 보도량과 내용을 분석했지만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많이 선택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에 따라 보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 연구의 일반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프레임을 찾아내었는데, 내용분석 등 양적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새로운 결과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변용진 위위장, “나영이 사건이 아니라 조두순 사건!,” 국민일보, 2009.10.5.
- [2] “성폭행사건에 언론은 늘 여성의 이름을 붙인다,” 미디어 오늘, 2016.6.4.
- [3] D. Hallin, *The Uncensored War: The Media and Vietn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4] D. L. Altheide, R. Janisch, L. Korbin, R. Maratea, D. Neil, J. Reaves, and F. V. Deman, “News Construction of Fear and Victim: An Exploration Through Triangulated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Qualitative Inquiry*, Vol.7, No.3, pp.304-322, 2001.
- [5] 최현주, “여성 대상 범죄보도에 대한 프레임 연구,” *젠더와 문화*, 제2권, 제1호, pp.39-58, 2009.
- [6] E. Conaway, “Victim Blaming,” pp.51-62, 2007.
- [7] P. Shoemaker and S. D. Reese, *Mediating the message*, New York: Routledge, 2014.
- [8] K. Heaney, ““She Got What She Wanted”: Blaming the Victim in Newspaper Coverage of Minnesota College Sexual Assaults (2000-2012),” *Hubert H. Humphrey School of Public Affairs*, 2012.
- [9] Z. P. Pan and G. M. Kosicki,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Vol.10, No.1, pp.55-75, 1993.
- [10] J. M. Pollak and C. E. Kubrin, “Crime in the News: How Crimes, Offenders and Victims Are Portrayed in the Medi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Vol.14, No.1, pp.61-83, 2007.
- [11] C. Greer, “News Media, Victims and Crime,” pp.21-49, 2007. in *Victims, Crime and Society*, Pamela D., Peter F. and Greer, C. SAGE.
- [12] C. Gilchrist, “NEWSWORTHY” VICTIMS? Exploring differences in Canadian local press coverage of missing/murdered Aboriginal and White women. 2012. Retrieved from <https://ipsmo.files.wordpress.com/2010/12/news-worthy-victims-gilchrist-2010-missing-murdered-aboriginal-women.pdf>
- [13] M. L. Doerfel and G. A. Barnett,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25, No.4, pp.589-603, 1999.

저 자 소 개

홍 주 현(Ju-Hyun Hong)

정회원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199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2009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언론학 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2월 : 베이징대 신문방송학과 연구학자
- 2013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소셜미디어, 여론, 네트워크 분석, 루머 확산